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자처울다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닭이 점점 새벽을 재촉하여 울다.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2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자처울다'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닭이 점점 새벽을 재촉하여 울다.

자처울다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자처울다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자처울다 사전 표기 요약	—	—	—	—	—	●→
자처울-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자처울다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자처울-

자처울다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자처울다’는 20세기부터 ‘자처울다’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자처울-’은 여러 차례로 거듭되는 간격이 매우 짧다를 의미하는 형용사 ‘잦-’에 사동 접사 ‘-히-’가 결합한 ‘잦히-’에 연결어미 ‘-어’와 기쁨,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다를 의미하는 동사 ‘울-’이 결합한 것이다. 이 결합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쳐울-’은 근대 국어 시기에 ‘ㅅ, ㅈ, ㅊ’ 아래에서 이중 모음 ‘ㅑ, ㅕ, ㅛ, ㅠ’가 ‘ㅏ, ㅓ, ㅗ, ㅜ’로 단모음화하는 현상에 따라 ‘자처울-’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자처울다

전체 용례 2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자처울-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자처울-

출처 1940 수정증보 조선어사전 용례 01

문헌 용례

자처울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2

문헌 용례

자처울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자처울다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자처울다의 뜻과 역사